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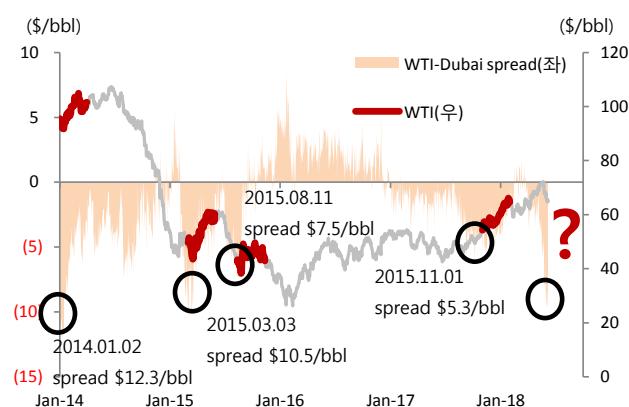
energy snapshot

Analyst. 손 지 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WTI 하락은 미국산 원유공급과잉을 의미

- ▶ 최근 Dubai 대비 WTI discount 심화는, 단기적으로 본다면 Dubai의 동반하락 보단 WTI의 반등여력 확대 의미함. 다만 이를 주도한 미국 원유/가스 수출급증은 큰 그림에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임을 잊어선 안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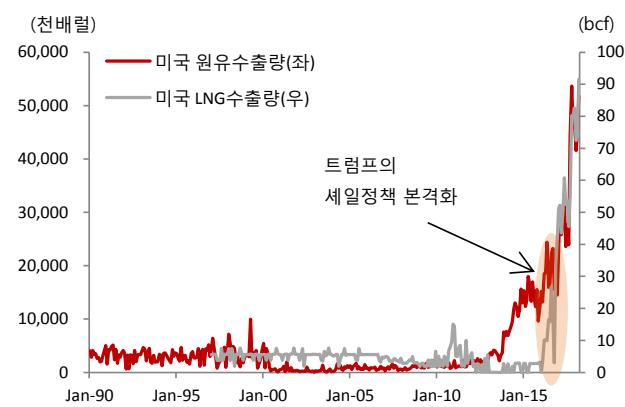
다시 한 번 크게 벌어진 WTI-Dubai 격차: WTI 반등 가능



자료 : Petronet, SK증권

- WTI-Dubai의 격차가 최근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정확하는 WTI의 discount 심화인데요. 6/8 기준 WTI \$65.7/bbl, 그리고 Dubai \$74.9/bbl로서 거의 \$10/bbl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
- 과거에도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. 특히 shale의 본격 생산증대가 시작된 이후로는 미국의 경질유가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동의 중질유 대비 가격이 할인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 중이죠
- 그렇다면 과거에 이 정도 가격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을까요? 2014년 이후로는 예외 없이 \$10/bbl 정도 가격이 벌어지면 곧바로 격차를 좁히고는 했습니다
- 그리고 그 때마다 WTI가 오르며 격차를 좁혔었는데요, 이번에도 Dubai가 빠지기 보다는 WTI가 올라올 개연성이 높겠죠

미국산 원유/가스 수출급증은 시장 공급과잉 심화 요인임



자료 : EIA, SK증권

- 하지만 근본적으로는, 단순한 WTI의 하락보다는 이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의 원유/가스 수출급증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
- 3월 원유수출은 5,181만bbl, 가스(LNG)는 91.5bcf였는데요, 각각 전년동월대비 +5.7%, +110.2% 증대한 수치였습니다
- 이렇게 수출을 급히 늘리다 보니 전년동월대비 원유/가스 재고 감소분은 -10%에 육박하여 사상최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
- 미국이 이 원유와 가스 수출을 위해 카타르와 이란을 뚫는다는, 그리고 실제 한국/일본은 미국의 요구대로 수입루트를 곧바로 미국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은 많은 보고서를 통해 보여드렸죠?
- 결국 미국산 원유/가스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급과잉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지정학적 요소에 의한 상반기 유가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

-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협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건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